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대학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in a College Student with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희정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Woo Hee 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사례개요 | 참고문헌 |
| III. 모래놀이치료 과정 | |

<Abstract>

A college student who exhibited several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was used as a case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herapeutic effects of sandplay therapy for PTSD sufferers. In total, 27 sessions of the sandplay treatment program were used to conduct psychological tests before and after the sessions. Any changes in the manner of expressions on the sand box during the treatment, and the results of pre and post psychological tests on aspects of depression, anxiety and interrelationships were analyzed. Overall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 exhibited progressive behavioral improvement and signs of recovery. Psychological tests revealed reduced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improved interrelationship scores. In conclusion, sandplay therapy does exhibit positive benefits as an effective treatment modality for PTSD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주제어(Key Words)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

Corresponding Author : Woo Hee Jung,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52 hyodukro, Jinwaldong, namgu, Gwangju, 503-703, Korea
Tel: +82-62-670-2360 Fax: +82-62-670-2180 E-mail: child@gwangju.ac.kr

* 본 연구는 2009년도 광주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인간은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이에 적응하려는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밟게 되며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증상 및 정신사회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Green, Lindy, & Grace, 1995). 외상(traumatic event)이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사건을 경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외상을 경험한 일부의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Ursano, Fullerton, & McCaughey, 199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란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으로써 피해자들은 개인이 다루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건에 노출된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사건을 겪은 후 당시의 증상들에 대한 반복적인 재경험이나 사건과 관련된 자극들을 회피하거나 지속적 각각성 상태에 놓임으로써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APA, 1994). 외상이 되는 사건은 전쟁이나 홍수, 폭풍,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그리고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산업장에서의 사고, 그리고 폭행, 강도, 강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불안, 우울 등 여러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며 정서, 사고, 성격, 행동상의 변화와 오래 동안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하게 된다.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쟁피해자를 중심으로 대부분 성인 남성에게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나, 1980년 PTSD가 DSM-III에 독립적 진단범주로 분류되면서부터 성별, 연령별, 사회적 계층별, 그리고 외상적 사건의 유형별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은 성, 연령, 계층과 관계없이 매우 흔한 심리적 장애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대체로 일반인구의 1-3% 유병율을 보이며 5-15%는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PTSD 증상을 경험하며, 외상에 노출된 자들 중 5-75%가 장애를 호소한다. 남자의 경우 대개 전투상황에서의 경험이 원인이 되며, 여성의 경우는 습격이나 강간이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PTSD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전쟁 및 재향군인(이지현, 김유숙, 최영안, 2004; 정문용, 1996), 탈북자(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허성호, 박은미, 정태연, 2008; 홍창영, 2005), 버스사고 등 교통사고 피해자(김태형 외, 1998; 남순현, 염태호, 1998; 우현아, 2001; 이선미, 2001), 재난사고 피해자(이지영, 유제민, 현명호, 2008; 전덕인, 1996) 등을 대상으로 PTSD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한 아동(김용태, 1997;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2000; 이진숙, 한영숙, 2006; 주은선, 박은란, 2003) 학대 피해 아동(김은주, 2007; 박아경, 2008)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들에게서 우울증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성 중 하나이다. 학살 생존자들, 자연재해의 생존자들, 캄보디아 탈출자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생존자들, 인질들, 그리고 강간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우울증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이지현, 2000, 재인용). 이처럼 PTSD를 평가하고 보다 넓은 임상적인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울증에 대한 인식과 주목은 중요하다. Wilkinson(1983)은 스트레스 반응 징후들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서 높은 비율의 우울성 특징이 나타남을 지적하였고 75% 이상이 우울감, 에너지의 감소를 느끼거나 둔해지는 느낌, 쉽게 움, 슬픔, 사물에 대한 흥미의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며 50% 이상이 무가치함, 성적 관심이나 즐거움의 상실, 피로, 그리고 반복적인 우울감을 나타내며, 환자의 약 45%에서 자살에 관한 생각들, 식욕의 상실, 그리고 열정의 상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깊은 우울감 외에 절망감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자살 가능성이 높음을 베트남전 귀향자들의 연구 결과(Goodwin, 1980)와 폭력범죄 희생자들의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불안은 PTSD 증상의 한 유형으로서 오랜기간 주목받아 왔으며 일반화된 불안, 공황장애 그리고 다른 불안 조건들이 PTSD에서 자주 발견된다. 많은 연구 결과들은 모든 PTSD 환자들에게서 불안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지현, 2000, 재인용). 일반적으로 PTSD는 회상되거나 현실에서 재 경험되는 사건의 불안으로 인하여 본래 외상적 상황의 공포를 회피하려는 증상을 보이며, 시련을 상징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노출될 때 심해진다.(Wilkinson, 1983). 그들의 감정은 점차 매말라가며 이전에 관계했던 활동에 대해 흥미를 상실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철수하며 분리와 고립감을 느낀다. Penk, Robinowitz, Patterson, Dolan과 Atkins(1981)은 베트남 전투원들에게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밀착하기, 가족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그들이 염려하는 사람에게 감정 표현의 곤란, 성적 문제 등 대인관계상 문제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죄책감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공통 특징으로써 자신이 재해의 원인에 기여하였다는 환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에 관련된 죄책감을 느낀다. PTSD 결과 자아기능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증상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Lindy, Titchener, 1983).

PTSD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는 PTSD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된 사건과 환자의 발병정도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하기도 하며 언어나 놀이를 통한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1980년 PTSD의 진단이 확립되기 이전의 초기에는 체계적 둔감법을 사용하여 사고 공포증의 치료에 주력하였으나, PTSD 진단이 확립된 이후에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현장노출과 심상노출을 조합한 치료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들이 대두되었으며 많이 사용되어졌다. 그 이후 PTSD의 치료에 인지적 신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인지.행동적 치료법의 사용이 활발해졌다. Blanchard와 Hickling(1997)은 교통사고로 인한 10명의 PTSD 증상을 지닌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매뉴얼화 된 인지.행동 치료법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선미와 김정희(2001) 역시 버스사고 피해자들의 PTSD에 대하여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아동의 경우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이선미, 2001; Joseph, Brewin, & Williams, 1993), 이진숙과 한영숙(2006)은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경험한 아동들에게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에 효과를 보았다. 아동들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들을 배움으로써 생활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의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PTSD에 대한 대상관계론의 치료적 접근을 들 수 있는데, 대상관계론적 입장에서 PTSD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들은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라는 치유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대상관계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위니콧의 개념인 ‘안아주는 환경’은 모에 대한 절대존 시기인 유아기에 모가 자신을 포근히 안아주는 존재로 다가와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게 해주고 자기 가치를 심어주는 경험을 말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자기의 경험들을 통합하고 자기를 위해 세상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환자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유아기적 부모의 공감적 반응을 갈망하며 상처회복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양한 심리치료 중 하나의 기법인 모래놀이치료는 자유롭게 보호된 공간에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일치되는 경험을 하면서 내담자의 자기치유력에 의해 스스로 성장, 발달, 변화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심리치료이다. 내담자는 지금까지 자신을 억압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했던 무의식의 것들을 모래상자에 표현함으로써 의식화하게 된다. 언어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 보호된 장면에서의 상징체현에 의하여 치료가 진행되어가기 때문에 특히 언어적 자기표현이 쉽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대인관계에 문

제가 있거나 위축된, 말하기를 회피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래상자는 정신적인 삶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의 역할, 내면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모래는 그 자체의 부드러운 질감으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속성이 있으며 거부감 없이 접하고 자신의 무의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곳에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며 상징적인 체험을 하는 과정 중에 치료가 진행되어간다. 즉, 내면의 무의식을 표현하고, 구체화된 무의식과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가 치유되어간다. 모래놀이치료는 로웬펠드에 의해 어린이를 위한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출발하였으나 도라칼프가 용이 연구한 상징과 심상의 의미를 모래놀이치료에 적용시킴으로써 모래상자의 표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길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기여하여 현재에는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문제 등 PTSD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모래놀이치료의 사례연구들을 보면,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김은주(2007)는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여 자아상의 변화와 에너지의 활성화로 외상이 치유되며 우울, 불안, 공격성, 분노의 감소와 자존감의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박지연과 이숙(2008)은 우울, 불안과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여 우울, 불안, 위축행동상의 변화와 자아개념의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극적 의사표현이 증가 하는 등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치료에서 최상국(2008)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PC중독과 학교부적응 행동을 보이던 청소년 내담자가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면서 서서히 변화되고 초기 불안이나 거부감, 경계심 등 문제가 감소되고 자신의 삶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래관계도 호전되는 등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전보경(2007)은 모래놀이 치료를 통한 자기표현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친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8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4명의 실험집단에게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하고 4명의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한 결과, 모래놀이 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경우 모래상자에 자신의 감정 및 사고를 표현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기표현이 향상되고 자신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중년기 우울증에 대한 모래놀이 치료사례로서 장현숙(2006)은 어린시절의 상처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고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부정적 자기상을 지닌 우울한 중년여성이 모래놀이 치료 과정을 통하여 긍정

적인 자기상을 구축해 나가는 개성화 과정을 보여주었음을 보고하였고, 박영금(2006)도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로 인한 부정적 아니무스를 지니고 남편과 시누이, 자녀들과의 많은 문제로 우울성향을 보인 중년여성의 모래놀이치료 결과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우울성향의 중년 여성사례에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제시한 황영선(2007)과 문채련(2008), 최종희(2008) 역시 우울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 모래놀이치료가 매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PTSD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 문제 및 자존감 변화에 대한 모래놀이치료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실시되어왔고 그 효과도 상당함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담자 역시 두 번의 외상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과 불안증상,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보이며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 내적인 혼란과 PTSD로 진단을 받았지만 외부의 지지가 없는 심각한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모래놀이치료가 매우 적절한 치료기법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모래상자에 표현하고 자신이 만든 세계를 치료자와 나누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래놀이치료 기법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내담자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TSD 증상을 보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여, 모래상자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PTSD의 증상으로 보이는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사전과 사후검사를 통해 그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사례개요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세(남)의 대학 1년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와 남자 형제 여섯 중 둘째이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다혈질이며 대하기 힘들지만 어머니는 천사같고 너그럽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3 때 바다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대신 숨진 형과 타국에서 분리 양육된 쌍둥이 동생을 제외하고 4형제와 같이 성장하였고 성장과정 중 맏아들의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이 늘 함께 하였으며 현재는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2. 치료경위

여름방학 때 실시한 현장탐방 도중 팀원 두명의 익사사고를 목격하게 된 내담자는 이 사고에 대해 자신의 적절한 대응부족으로 간주하고 심한 자책감을 갖게 되었다. 평소 소모임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던 내담자는 사고 이후 방학 내내 가족 뿐 아니라 친구 등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관계를 회피하며 시간을 보냈고, 개학이 된 후 2주 동안 친구관계 뿐 아니라 수업, 소모임 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휴학을 생각하는 등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 매우 심한 우울증상과 불안상태를 보이고 신체적으로도 수척하게 되어 주변 친구들이 매우 걱정하는 상태가 되었다. 당시 사고를 경험한 팀원들에게 모래놀이치료의 기회가 주어졌고 내담자도 그 중 한명으로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심리검사

우울과 불안이 심하고 의욕이 없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우울증검사, 불안검사, 대인관계문제검사,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였다.

1) 우울증 검사는 이민수와 이민구에 의해 개발된 한국우울증검사(KDS-30)로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T 점수 61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59), '걱정과 초조' (60), '우울기분' (49), '신체화 증상' (61), '의욕 상실' (59), '충첩' (59) 으로 모든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태 - 특성 불안 검사는 Spielberg(1983)의 State Trait Anxiety Scale을 한덕웅, 이장호와 전경규 번안하여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한 한 총 40문항의 자기감정평가 질문지(STAI-KYZ)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신경증, 우울증 환자들에의 임상적 불안 평가에 널리 이용되는 이 검사에서 내담자는 T점수 60(상태불안), 76(특성불안)으로 나타남으로써 불안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대인관계문제 검사 결과(김영환 외, 2005), 성격장애척도 프로파일에 의하면 '사회성 부족'의 하위척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T = 75), 이는 타인과 함께 있으면 매우 불편해하고 쉽게 긴장하며 자신감이 결여되는 경향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형척도 프로파일에 의하면 '사회적 억제' (73점)와 '비 주장성' (73점)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역제의 경우 감정표현이나 집단참여, 사회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주장성의 경우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비주장적이라고 표현하는 경향. 타인의 주목받기를 꺼리며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문장완성검사결과 사고에 대해 심하게 자책하는 모습과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과 걱정 등으로 가득 차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등 매우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심리검사 결과 내담자는 자존감이 낮으며 현재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사례개념화 및 모래놀이치료 목표

내담자는 청년기에 경험한 외상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아동기 때 경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 과정 중에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으리라 본다. 형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 뿐 아니라 첫 자녀로서의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했으며 이러한 요인은 완고한 성격의 아버지 밑에서 내담자에게 자기주장 및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억제된 상태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성장해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에 진학한지 6개월 만에 비슷한 상황의 노출은 내담자의 자아를 완전히 약화시키고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하며, 일상적인 생활까지 곤란하게 하였을 것이다.

모래놀이치료는 두 번의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극복하고, 성장 과정 중 형성되었을, 약하고 부정적인 자아가 강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대인관계나 학교생활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실시하기로 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진행 중 내담자는 모래상자와 물, 많은 소품들이 있는 치료실에서 자신의 내적세계와 외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고 무의식의 내용을 드러내게 된다. 즉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미지의 것들을 의식화하게 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서 통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치료자는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고 내담자와 모자일체성의 관계를 유지하여 내담자의 주도권을 따르고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최대의 치료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내담자가 외적 압력 없이 자신의 내면을 모래상자에 표현하고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며, 자신이 꾸민 상자를 음미하고 치료자와 생각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모래놀이치료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내담자의 자아가 강화되고 대인관계나 일상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았다.

Ⅲ. 모래놀이치료 과정

제1차 상담(2007년 9월 10일/ 제목: 아무것도 없는 . . .)

- 처음 놓은 소품: 소년과 남자
- 모래놀이과정



- ① 소년과 어깨에 기대어 있는 남자와 하얀 자동차를 우측 상단에 배치한다.
- ② 좌측 하단에 물을 만들고 수상스키를 타고 있는 구피를 아래를 향하게 놓는다.
- ③ 좌측 하단에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 구멍보트 두 개를 실은 나룻배를 놓는다. 자리에 앉은 후, 수 분 동안의 침묵이 흐르다가 우측 상단의 모래를 콧속 찌르기 시작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란 말을 하며 다시 생각에 잠겼고 여러 차례 한숨과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눈물을 참기 힘들었는지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나가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다.
- ④ 한참 후 갑자기 일어나서 날카로운 돌들을 가져와 하단 중앙에 놓으며 "날카로워,,," "발이 아프,,," 발, 발, 발,,,"라고 말하더니 모래를 소년의 발이 묻히게 쌓았고 이후 소년은 성장을 멈춘 것 같다는 말을 한다. 모래상자에 등장한 상들에서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듯 머리를 잡으며 흔들면서 온다.

제2차 상담(2007년 9월 17일/ 제목: 푸른나무)

- 처음 놓은 소품: 등대
- 모래놀이과정(하얀모래)



- ① 등대를 우측 상단 구석에 놓고 그 옆에 작은 고양이를 놓으며 자신 같다고 한다. 새장으로 가고 싶어도 발이 묶여서 가지 못한다고 한다. 스스로 묶었다고 한다. 창틈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 그림자가 생겼고 아침 같다고 한다.

- ② 고목과 공중전화 2대를 놓고 고목은 고양이가 놀던 데 인데 죽어가니까 고양이가 옮겨 갔고 지금은 완전히 죽은 나무라고 한다.
- ③ 빙산조각 두개를 상, 하단에, 기차 3냥을 좌측에 놓으며 빙산을 향해가고 있다고 한다.
- ④ 새장을 중앙에 놓으며 안에 있는 새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속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 같다고 한다.
- ⑤ 재배열을 권하자 모래시계를 고목 옆에 놓혀 놓는다.

제3차 상담(2007년 10월 1일)

계속해서 피겨장 주위만 돌아다니며 소품을 집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일상적인 대화를 한 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마치다.

제4차 상담(2007년 10월 9일/ 제목: 무제)

- 처음 놓은 소품: 백곰
- 모래놀이과정(하얀모래)



- ① 백곰을 좌측 하단에 놓고 그 앞에 다리를 놓는다. “곰이 다리를 건너려 하는데 좁다. 다리가 못 건너게 막는 것 같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다.”
- ② 삽을 들고 와서 한참동안 들고 있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고 모래를 다리위에 살살 뿌리기 시작한다. “다리는... 형, 누나, 친구들,...” 모래 상단에 삽으로 해안선 같은 윤곽을 그린 후, 삽을 꽂으며 마친다.

제5차 상담(2007년 10월 23일/ 제목: 튜브)

- 처음 놓은 소품: 가로등
- 모래놀이과정(하얀모래)



- ① 가로등 세 개를 우측에 놓고 원래 4개인데 하나는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 모두 각각각색으로 빛을 내고 있다고 한다.
- ② 좌측상단 세면대위에 구멍튜브 두 개를 올리고 주변에 빨간 보석돌을 뿌리며 뾰족한 돌인데 세면대에서 넘쳐 흘렀다고 한다.

제6차 상담(2007년 10월 30일/ 제목: 무제)

- 처음 놓은 소품: 돌고래 동상
- 모래놀이과정



- ① 우측하단에 돌고래 동상과 빵바구니를 놓으며 여행가려고 들고 있다고 한다.
- ② 야외용 철제 탁자와 의자 세 개를 좌측 상단에 놓으며 의자 자국을 여러번 만든다. 의자는 원래 6개인데 지금은 4개이고 하나는 안 보인다고 한다. 의자 자체가 사람들이며 대화하면서 기다린다고 한다.
- ③ 중앙에 구멍튜브를 놓으며 튜브가 본인인 것 같다고 한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 지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제7차 상담(2007년 11월 13일/ 제목: 통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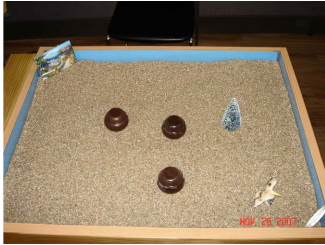
- 처음 놓은 소품: 개집
- 모래놀이과정



- ① 개집을 우측 하단에 놓으며 어린시절 생각이 난다고 한다. 천방지축, 덜렁대고 조심성 없고... 잘 깨뜨리고.... 중학교 이후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무섭고 화내는 모습이 싫은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회피한다.
- ② 중앙에 통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빨간 돌을 놓고 잔디 풀을 통나무 가에 놓는다.
- ③ 빨간 나뭇잎을 통나무 옆에 꽂는다.

제8차 상담(2007년 11월 27일/ 제목: 목도리)

- 처음 놓은 소품: 펠리칸
- 모래놀이과정(하얀모래)



- ① 우측 하단에 거울을 보고 있는 펠리칸을 놓으며 직접 대면하기 싫고 자신도 없어서 거울을 통해 뒤의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 더 가깝게 보인다고 한다.
- ② snow tree를 우측 중앙에 한숨을 쉬며, 아주 신중하게 놓는다. “원래는 따뜻해야 되는데 추운 것 같아요. 같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으니깐요. 장식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깐... 제목은 ‘목도리’ 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눈 내리고 추우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었어요. 그때는 같이 있었으니깐... 지금은 아니예요.”
- ③ 항아리 세 개를 중앙에 띄엄띄엄 놓고 좌측 상단에 이젤을 놓으며 이젤속의 길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제9차 상담(2007년 12월 4일/ 제목: 알)

- 처음 놓은 소품: 조개껍질
- 모래놀이과정



- ① 고목을 우측에 놓고 가지마다 조개껍질을 매달 듯이 걸어놓고 아래쪽 모래에는 메추리알을 놓는다. 자꾸 떨어지고 위태로와 보였으나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잡아 준다고 한다. 그러나 힘들어서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을 한다.
- ② 조개껍질 하나를 바닥에 꽂고 그 위에 분홍 나비를, 새를 고목 주위에 놓는다
- ③ 좌측상단에 소나무를 놓고 위,아래에 나비 여섯마리와 빨간 보석돌 여섯개를 놓는다.
- ④ 모래의 중앙에 사선으로 길을 만들며 양쪽으로 갈림길을 만들며 고목과 푸른 나무 중 뭐가 좋고 나쁜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모르며 사람마

음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잔디풀을 가져와 고목에 두 개 달아준다.

10차 상담(2008년 3월 17일/ 제목: 바람일까? 바람일까?)

- 처음 놓은 소품: 공중전화
- 모래놀이과정(개학 후 새로 시작한 상자)



- ① 공중전화를 우측 하단에 놓고 그 앞에 가로등을 놓으며 가로등이 공중전화 문 앞을 가로 막아서 잘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너무 세서 문이 날아 갈까봐 가로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상태 같다고 한다.
- ② 빨간 헬기와 작은 풍차 집을 하단에 놓으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서 부럽다고 한다. 풍차는 지금은 안 돌아하는데 바람이 없어야 돌아가는 풍차라고 한다.
- ③ 위쪽의 모래를 언덕처럼 여기저기 만들며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한다. 변화의 바람. 자신도 변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이번학기에는 봉사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좀 없애보려고 한다는 말, 그리고 모래상자를 꾸미고 가면 계속 상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곤 한다는 말을 한다.

제11차 상담(2008년 3월 28일/ 제목: 무제)

- 처음 놓은 소품: 목관
- 모래놀이과정(하얀모래)



- ① 목관과 유리구슬 속 곰돌이, 통나무 눈사람을 좌측에 놓고 그 위에 나비 한 마리를 얹는다. 관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상자이며 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 ② 주사위를 목관 위에 세우려다 안 되자 목관 앞에 비스듬히 놓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스듬히 놓았다고 한다.
- ③ 자동차를 우측 하단에서부터 움직여 바퀴자국을 만든

후 중앙에 놓고 나비를 자동차 앞에 놓는다. 자동차는 나비를 따라 가고 있고 통나무 위의 나비는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제12차 상담(2008년 4월 3일/ 제목: 노란버스)

- 처음 놓은 소품: 빌딩
- 모래놀이과정



- ① 빌딩과 노란 스쿨버스를 좌측 상단에 놓는다. 빌딩은 원래 밝고 명쾌한 색의 건물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더럽고 우중충해보이는 것 같다고 한다. 노란버스는 놀러가는 버스인데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 ② 맵인걸을 중앙상단에 놓고 뭘 찾고 있는데 버스가 보여서 기웃거리고 있다고 한다
- ③ 우측 상단에 잔디터미와 돌 울타리, 큰 당산나무를 놓는다. 하단 모래위에 손가락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물 흐르는 것처럼 자국을 내면서 애들이 놀아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얇은 개울이라고 한다.

제13차 상담(2008년 4월 10일/ 제목: 무제)

- 처음 놓은 소품: 튜브위의 구피
- 모래놀이과정



- ① 커다란 자전거를 좌측 상단에, 구피를 키가 큰 나무 아래 놓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쉬고 있다고 한다. 구피는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황당하고, 엉뚱하며 코믹한, 다정다감한 캐릭터라고 한다.
- ② 작은 들꽃 들을 여기저기 꽃으며 분위기가 들뜬 것 같으며 잠점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미소 짓는다.
- ③ 사다리를 우측 상단에 세워 놓고 하늘까지 닿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제14차 상담(2007년 9월 10일/ 제목: 시간, 삶)

- 처음 놓은 소품: 흰 탁자
- 모래놀이과정(유아용 모래상자)



- ① 좌측 하단에 탁자의 유리뚜껑을 열고 찻잔 세트를 놓으며 유리를 통해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그네와 흔들의자도 탁자 옆에 놓고 흔들어 본다.
- ② 우측 상단에 장롱, 공중전화, 뚝단배, 가로등을 놓으며 모두 장롱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목적지가 탁자 쪽인데 탁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 ③ 모래시계를 장롱 옆에 놓고 뒤집으면서 장롱 문이 닫히고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곧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유난히 모래시계를 많이 만지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는 말과 지난주엔 중간고사 때보다 여유가 더 없었던 것 같으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제15차 상담(2008년 5월 8일/ 제목: 몇 번째 마을인가)

- 처음 놓은 소품: 나비
- 모래놀이과정(굵은모래)



- ① 모든 소품을 거꾸로 배치한다.
- ② 고양이는 똑바로 우측 하단에 놓으며 흰모래에서 할 걸 그랬나? 하면서 맑은 하늘이라고 생각하자고 한다.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도 이상한 거라고 한다. 고양이가 꼬리를 잡으며 “변화를 할 줄 안다고 해야 되나? (뒤집어 놓으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어떤 곳이 제대로 됐나하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는데, 결정을 못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자기에게 맞는 세상, 마을을 찾아... 못 찾았다.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찾았을 텐데... 아직은 안 지친 것 같다. 희망을 품고 여행을 하는

것 같다. 자기가 편한 델 찾기를 바란다.” 찾으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려고 떠나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제16차 상담(2008년 5월 22일/ 제목: 금붕어)

- 처음 놓은 소품: 잔디와 고깔모자소년
- 모래놀이과정



- ① 좌측하단에 잔디를 깔고 그 위에 고깔모자 소년은 놓으며 풍요의 여신, 봄을 깨우는 여신이라 한다.
- ② 가로등과 돌담에 금붕어를 걸어서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놓는다. 이 고기들은 걸려있는 것 아니고,, 공중을 헤엄치고 있다며 새가 하늘을 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당연하다고 한다.
- ③ 나무 두 그루를 중앙 하단과 우측 상단에 놓고 그 위에 금붕어를 달아 놓는다.
- ④ 고양이를 중앙에 놓으며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
- ⑤ 술방울 세 개를 상단에 놓고 하나를 하단에 놓는다.
- ⑥ 고래를 공중에 띄우고 싶는데 할 수가 없다며 나무 위와 잔디위에 놓고, 새처럼 공중에 물고기가 산다고 한다.
- ⑦ 그물 망 속의 자갈 멍치를 들고 있다가 상자 테두리에 놓고, 앉아서 계속 흔들어 소리를 낸다. “자갈은 바람 소리다. 바람 불면 남끼리 부딪히는, 기분 좋은, 상쾌한 소리.... 길은 바람이 인도해 줘요.”

제17차 상담(2008년 6월 13일/ 제목: 봄바람)

- 처음 놓은 소품: 폭포
- 모래놀이과정(하얀모래)



- ① 폭포와 튜브위의 구피, 빙산조각, 곰돌이들을 좌측 상단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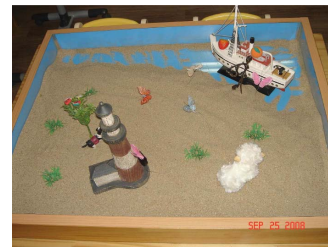
- ② 구멍튜브 여섯 개와 가로등을 하단의 모래위에 놓으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떠다니며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 ③ 우측상단에 큰 배와 걸쳐있는 다리를 놓으며 녹으면 가려고 대기 중이라고 한다.
- ④ 수초들을 모래 속에 묻어 조금씩만 보이게 하며 얼음이 녹고 있으며 풀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서 폭포는 흐르고 있는데 밑 부분은 얼어 있다고 한다.

제18차 상담(2008년 9월 18일)

지금까지 실시했던 17장의 사진을 보면서 내담자와 치료자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회상하였다. 자신과의 싸움 끝에 많은 변화를 보였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에 모래놀이 치료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내담자는 아버지에게 모래놀이 치료를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치료자에게 문의하였고 그 결정은 내담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제19차 상담(2008년 9월 25일/ 제목: 흥얼거림(기분 좋아))

- 처음 놓은 소품: 푸른 나무
- 모래놀이과정(유아용상자)



- ① 좌측하단에 나무와 수박 두 조각, 등대와 초밥도시락을 놓는다.
 - ② 상단에 물을 만들고 큰 배와 김밥, 꿀, 딸기, 배 옆에 트럼펫 부는 인형을 놓는다.
 - ③ 나비 다섯 마리와 풀 잔디를 중앙에 놓고 맹인견을 나무 아래에 놓으며 나무 밑에서 포근하게, 평안하게 낮잠 자는 모습이라고 한다. 유아용 상자에서 하니까 마음이 모래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 수박 냄새와, 바다 내음이 물신 풍기는 것 같다고 한다. 여행가는 기분, 즐겁고 들뜬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모래는 백사장이 아닌 기름진 땅이라면서 기분 좋아한다.
- 재배열: 양 한 마리를 우측 하단에, 몽실거리고 부드러운 촉감이 너무 좋다고 한다.

제20차 상담(2008년 10월 2일/ 제목: 여유롭게 천천히)

- 처음 놓은 소품: 푸른 나무
- 모래놀이과정



- ① 푸른 나무, 단풍나무들 놓으며 예전에는 이 나무들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며 아름답고, 가을소풍 그런 느낌, 기다려지는,, 기대감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 ② 가로등 네 개를 단풍나무 사이에, 모래시계를 좌측 하단 구석에 놓는다.
- ③ 전화기와 공중전화를 중앙에 놓으며 공중전화는 받기만 하고 까만 전화기는 받기도 하고 걸기도 한다고 한다.
- ④ 눈 덮힌 나무와 작은 소파를 우측 중앙에 놓은 후 케익을 소파위에 놓으며 즐겁고 들뜬 크리스마스 생각과 편안하고 안락하게 온 가족이 케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상자를 마친 후 답답함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기대감도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상하고 꾸민 거라고 한다.

제21차 상담(2008년 10월 9일/ 제목: 무제)

- 처음 놓은 소품: 소나무
- 모래놀이과정



- ① 바위 틈새에 작은 들꽃이 있는 소나무를 좌측 하단에 놓는다.
- ② 산타가 들어있는 투명한 하트모양의 소품과 하얀 곰 인형을 하단 중앙에 놓으며 따뜻하고 포근해 보인다고 여자친구 갔다 주면 좋아하겠다고 한다. 군대도 가야 하고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는 말을 한다.
- ③ 그네를 좌측 하단에 놓고 풀 세계와 나비 두 마리를 가운데 쫓는다.

상자의 3/4이 비어있으나 손가락으로 소품 있는 곳만 모래를 가르며 짝 찬 느낌이라고 말한다.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지금 만족한다는 말과 의무소방대에 가고 싶다는 등 장래의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제22차 상담(2008년 10월 23일/ 제목: 다음은 어디일까?)

- 처음 놓은 소품: 울타리
- 모래놀이과정



- ① 울타리로 중앙에 길을 만들고, 단풍나무잎, 동물들, 나비 네마리를 상하단에 놓는다.
- ② 노란버스를 좌측 하단 길 시작점에 놓고 그 위에 병아리 등지와 도시락을 엮는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친구들, 동생, 선배들... 놀러 간다. 자신도 있다. 설레이는 마음이 든다며 예전에는 꾸미다보면 마음이 거북함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변한 것 같고, 주로 과거를 많이 꾸미고 생각에 잠겼던 것 같은데 미래를 꾸미게 된다는 말을 한다.

제23차 상담(2008년 10월 30일/ 제목: 도레미파솔라시도)

- 처음 놓은 소품: 실로폰
- 모래놀이과정



- ① 실로폰 소리를 내며 중앙 하단에 놓고 공중전화도 소리 나는 것을 처음 알았다한다.
- ② 꽃잔디를 실로폰 아래에 깔고 나무의자(흔들의자)와 모래시계를 놓는다.
- ③ 빌딩, 정거장, 클럽하우스, 이젤을 놓은 후 공중전화로 모래길을 만들고 잔디위에 놓는다. 일이 한꺼번에 갑자기 밀려들어서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이 흔들의자를 보며 마음이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다. 집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고 학교에서는 무척 바쁘다는 이야기와 바쁠 때 일수록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겠다는 말을 한다.

제24차 상담(2008년 11월 6일/ 제목: 따뜻한 육조물)

- 처음 놓은 소품: 육조

■ 모래놀이과정



- ① 욕조를 중앙에, 등대를 우측 하단에 놓으며 물속에 들어가 폭 쉬고 싶다고 한다. 등대는 왜 집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 ② 잔디터미를 깔고 그 위에 술 탁자와 케익, 빵바구니, 과일, 병아리 등지를 놓는다.
- ③ 당산나무와 가로등을 잔디 옆에 놓고 다른 키 큰 단풍나무를 놓으며 가로등 불빛이라고 한다. 며칠 전 친구들과 학교잔디밭에서 생일파티 한 이야기를 한다.

제25차 상담(2008년 11월 13일/ 제목: 봄을 기다림)

- 처음 놓은 소품: 푸른나무
- 모래놀이과정



- ① 푸른나무를 우측 하단 구석에 놓고 통나무 눈사람을 그 옆에 놓으며 지금은 겨울인 것 같다고 한다.
- ② 모래위에 여섯군데 손바닥을 찍고 손바닥 중앙에 나비를 한 마리씩 놓는다. 손바닥은 노력, 창조 그런 것들을 의미하며 나비는 씨앗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돌봐주어야 하는 씨앗이라고 한다.

제26차 상담(2008년 11월 20일/ 제목: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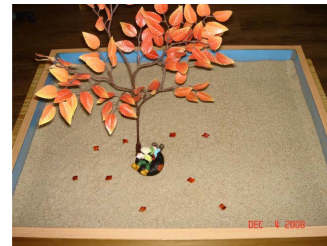
- 처음 놓은 소품: 양
- 모래놀이과정



- ① 양 4마리를 중앙에 등글게 놓으며 “바닥을 숨으로 깔고 싶다. 양을 숨이라고 생각하지요” 한다.
- ② 파란 소파 두개를 좌측에 놓고 곰 인형을 우측 하단 구석에 놓은 후 1회기 때 등에 업었던 남자 인형을 가져와 의자에 앉히려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네...”하며 다시 갖다 놓는다. 폭신한 소파에 가족들이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면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아리 식구들의 이야기를 한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다고 하며 뭘 원해서도 아니고, 만족스럽다는 말을 한다.

제27차 상담(2008년 12월 4일/ 제목: 내일)

- 처음 놓은 소품: 단풍나무
- 모래놀이과정(유아용상자)



- ① 단풍나무를 중앙에 놓고 튜브위의 구피를 나무 아래에 놓는다. 그늘 아래서 근심 걱정 없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 ② 빨간 돌을 주변에 놓으며 낙엽이라 한다. 상자가 비어 있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더 갖다 놓을 수 있어서 여유롭게 느껴진다고 한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편안해 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두 차례의 외상으로 인해 우울증상과 불안상태가 심하게 나타나고 의욕이 없으며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매우 힘들게 된 대학생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탐색하였다. 27회기 동안 진행된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에게 외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우울과 불안상태에서 회복하여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삶의 여유를 누리는 정상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논의는 모래놀이 치료과정에서 본 연구자의 해석과 사례 종결 후 실시된 국제 모래놀이치료학회 지도감독 전문가의 수퍼비전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먼저, 모래상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1회기는 처음 외상을 경험한 시기로 퇴행하여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 보이는 상자이다. 남자를 부축하고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소년의 모습은 당시의 무기력했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이후 성장을 멈춘 것 같다는 의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 오염하며 자신의 모래상자에 몰입하는 내담자의 태도에서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며 모래놀이 치료를 통한 많은 내적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상자에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표현에서 에너지가 약하고 아직 그럴만한 용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회기는 현재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상자로서,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간혀있는 듯한 자신과 차가운 빙산을 향해 질주하듯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무언의 표현을 하고 있다. 죽은 나무와 눕혀져 있는 모래시계는 지난회기의 정신적 성장을 멈춘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알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듯 공중전화가 등장했고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상자의 모습이 아침 같다는 말이 희망적이다.

4회기부터 6회기까지는 생사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담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상자로서 4회기의 물이 없는 '다리'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리의 표현은 이승과 저승의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5회기는 사고를 당한 두명의 선배와 형을 생각하고 꾸민 상자다. 자신 역시 이 세 형의 대열에 넣고 싶은 듯, 4개의 가로등 사이에 자신을 투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좌측의 뾰족한 돌에선 상처받은 심리를 엿보게 된다. 6회기에서 아직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망설이고 있다는 내담자는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4형제를 의미하는 좌측과, 사고를 당한 형들을 표현하고 있는 우측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4형제 중 하나의 투명한 의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이 의미롭고 지난 5회기 때의 모습과 연결되는 듯하다.

7회기부터 9회기까지의 상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상자다. 7회기는 지난회기까지 상자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통나무 위에 피어난 꽃송이와 파란 잔디가 희망적이다. 상자를 꾸미는 내내 매우 기분 좋아하며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시절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8회기에는 형들의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PTSD 증상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 자신의 고민과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로운 상자이다.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세 개의 향아리는 아마도 죽은 세 명의 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래놀이치료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비언어적 방법으로 모

래상자를 꾸밈으로써 놓고 자신의 무의식이 표현되고 이를 통해 치유가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내담자는 또한 이젤 속의 길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앞으로의 길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듯하다. 9회기에 내담자는 아직도 중앙에 손으로 길을 모래밭에 그으며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길 양쪽에 서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의미롭다. 한쪽은 늘 푸른 소나무에 여섯 마리의 나비와 여섯 개의 보석돌이 있고 한쪽은 고목에 위태로운 듯 매달려있는 조개껍질 다섯 개와 바닥에 꽃힌 하나의 조개, 그리고 그 위의 나비가 있다. 나비는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개껍질은 나무가 잡아주어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진다는, 그러나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이 의미롭다. 마지막에 가져온 파란 잔디풀이 희망적으로 보인다. 10회기는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약속되었던 마지막 회기이다. 이 시기가 겨울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고 PTSD 진단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하다. 상자의 모습은 변화하고자 하는 바람은 있으나 돌아가지 않는 풍차와 적은 소품에서 내담자의 에너지가 매우 다운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치료자와 계속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자에서 가로등과 공중전화로 표현되어졌으며 계속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다.

이후 11회기부터 17회기까지 내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다니며 내면 세계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11회기에 자동차가 나비를 따라가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주사위를 비스듬히 놓았다고 한다. 방황하고 있는 내담자의 심리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의 움직임에선 내담자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12회기에 맹인견은 뭔가를 찾고 있는 자아상으로 보이며 빌딩이 더럽고 우중충하게 보인다는 표현에서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엿보게 된다. 상자의 방향성을 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것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갈 수 있으리라 여긴다. 13회기의 커다란 자전거에선 에너지가 느껴진다. 내담자 스스로 점점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담은 좋은 징조로 보인다. 자신의 상으로써 황당, 엉뚱, 코믹한 구피를 놓은 내담자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변함을 느낀다. 사다리의 등장이 의미롭다. 내담자는 이 사다리를 타고 또 다른 세계의 모래여행을 하게 된다. 14회기에 장롱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온 듯하다. 상자의 방향성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고 있다. 15회기도 지난회기와 연결된 상자다. 탁자의 뚜껑 유리를 통해 아래쪽에서 바라본 모습 인 듯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있다. 나비는 죽은 자들, 세 명의 형들에 대한 상징으로 보인다. 현실의 세계는 아닌 듯하다. 자신의 상으로 고양이 놓았으며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 16회기, 여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자의 모습이다. 물속이 아닌 허공에

물고기들이 떠돌아다니며 고양이에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자갈 몽치를 이용한 효과음은 무의식의 것들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는 듯하며 무의식으로 더욱 들어가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7회기 상자의 모습은 마치 천상의 모습 같다. 물이 없는 상태의 배와 배에 걸쳐있는 다리의 모습은 마치 14회기 이후 천상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하선하려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직은 얼음바닥이지만 녹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과 파릇파릇 돌아난 새 싹이 희망적이다. 여섯 개의 가로등도 의미롭다. 자신의 삶에 여섯 형제의 의미를 크게 두려는 것인지... 전 회기를 통해 보았을 때 17회기는 자신의 삶의 기로에서 전환점이 된 듯한 상자이다. 이 회기 이후 상자의 모습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습, 천상의 모습이 아닌 지상의 모습들을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회기부터 현실감 있는 상자를 꾸미게 되며 내담자의 방황하는 모습은 없어진다. 이즈음에 내담자는 불안감이 많이 감소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9회기의 상자는 천상에서 방황하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다. 배의 아래에는 물이 있고 항해할 수 있는 실제의 배를 꾸미고 있다. 지난회기의 배와는 다르다. 가로등은 커다란 등대로 변화했다. 12회기 때 방황하던 맹인견이 나무 밑에서 평안히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꾸미고 있다. 내담자의 내적 상태를 짐작케 한다. 20회기의 키 큰 나무들에선 에너지가 느껴지고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일상적인 내용과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자를 진행하면서 초기의 내담자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21회기는 상자의 비어있는 공간이 신경에 쓰인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과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듯 손가락으로 경계를 지으며 욕심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다짐인 듯하다. 22회기에서 내담자는 상자를 꾸미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상자의 방향이 예전과는 반대임을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되며 이는 내담자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23회기를 진행하는 내내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선후배와의 관계, 가족이야기 등 일상이 바쁘다는 말을 하는 내담자에게서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겨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관계형성을 못하던 과거의 내담자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다. 24회기에 내담자는 가로등과 등대의 불이 내담자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도록 잘비춰 줄 것 같다고 한다. 군 입대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생일파티 장면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내담자에게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하여 내담자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회기에서 현실의 삶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

하듯 손바닥 도장을 모래밭에 찍었다.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함께 함의 의지가 생긴 듯하다. 여섯의 의미는 여섯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26회기에 내담자의 상태가 평안해 보인다. 1회기 때의 남자상을 놓지 않고 치우며 빈 의자로 남겨두는 내담자는 외상에 대해 직면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며 이는 그만큼 상처에 대하여 극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7회기 상당히 여유롭게 느껴지는 상자의 모습에서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상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2회기 때의 완전히 죽었다던 나무가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변했으며 1회기 때의 깊은 바다를 향해 수상스키를 타며 무의식의 바다에 떠돌던 구피는 이제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5회기의 세면대에서 흘러내린 뾰족한 보석돌(상처)을 낙엽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아용상자에서 꾸미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행복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내담자의 말에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됨을 볼 수 있다. 내담자는 이제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담자는 그동안의 고통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 휴식하는 모습을 꾸미으로써 종결을 했다. 27회기의 전체 모래놀이치료과정은 초기 외상으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심리상태가 퇴행과 직면하는 작업을 통해 표현되어졌으며 현실과 죽음의 기로에서 방황하던 모습은 17회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현실세계로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된다. 18회기부터는 일상적인 삶의 테마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치료과정 중 모래상자에 드러난 죽음에 관한 sign들에서 내담자의 심리상태가 위기에 처서 있음을 짐작케 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담자는 현실적인 상태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마지막 안정된 모습을 취하기까지 총 27회기의 기나긴 모래여행을 종결지었다. 모래놀이치료는 두 번의 외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내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PTSD 증상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담자는 모래상자에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였고, 변화된 모습은 상자에 충분히 드러났지만 종결 후 다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울증검사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T 점수 50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49), '걱정과 초조' (58), '우울 기분' (46), '신체화 증상' (57), '의욕상실' (50), '총점' (52) 모든 차원에서 점수가 감소하여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 하던 내담자는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

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불안검사 역시 '상태불안' (49)과 '특성불안' (45)이 모두 정상범주에 속하는 변화를 보임으로써 모래놀이치료는 PTSD 증상인 불안과 우울수준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치료기법임이 검증되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 검사 결과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사회성 부족' 하위 변인의 점수는 49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억제' (51점)와 '비 주장성' (55점) 하위척도의 점수 역시 변화하였는데, 초기의 친구관계 및 모든 인간관계를 회피하던 내담자의 모습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보임으로써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서 모래놀이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전의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담자는 자존감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종결 후 실시한 자아개념 검사(이경화, 고진영, 2006)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아개념(백분위 점수 85)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하위요인 중 수학(89), 언어(85), 일반교과(83), 문제해결(95), 정직(91), 정서(83) 하위영역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능력(60), 신체외모(71), 동성친구(65), 이성친구(62), 종교(63), 일반자아(51)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하위요인(23)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

본 사례를 통하여, 모래놀이치료는 극도로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내담자에게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자신에 관해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고 안내해 주었으리라 본다. 모래놀이치료는 자신의 내적세계로 인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상자에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식적인 상태에서 무의식을 점검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내담자는 불안과 우울감이 감소되었고 자아가 강해지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호전되어졌다.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 자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청소년의 모습은 자신의 길을 찾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보였고 초기의 낮은 자존감도 회복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기쁘게 인정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며 있음은 실로 모래놀이치료의 효과가 컸음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모래놀이치료는 PTSD 증상인 불안과 우울수준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자아를 강화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향, 박은영(2005). **대인관계문제 검사**. 서울: 학지사.

김용태(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 청소년 문제 연구보고서, 29**,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은주(2007).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태형, 김임, 이선미, 은현정, 김동인, 강영수(1998). 교통사고 후 신체손상 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7**(4), 650-659.

남순현, 염태호(199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성격요인과 대처방식과의 관계-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1), 171-184.

문채련(2008). 우울성향을 보인 중년여성에 대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3), 439-455.

박아경(2008). 성학대 피해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금(2006)도 우울성향이 있는 중년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모래놀이치료연구집, 2**, 57-48.

박지연, 이숙(2008). 우울, 불안과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놀이치료 효과. **놀이치료연구, 12**(3), 85-104.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2000).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124-143.

우현아(2001). 교통사고 환자의 다발성 손상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2007). **한국심리학회지, 19**(3), 693-718.

이경화, 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 서울: 학지사.

이미식, 김희재(2006). PTSD 아동에게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2**, 199-226.

이민수, 이민규(2005). **한국 우울증 검사**. 서울: 학지사.

이선미(2001).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지.행동 집단치료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선미, 김정희(2001). 버스사고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지, 행동집단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3**(3), 225-245.

이지영, 유제민, 현명호(2008). 소방대원의 정서기능, 적극적

- 대처양식, 사회적지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2), 373-389.
- 이지현(200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성격특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현, 김유숙, 최영안(2004). 전쟁으로 인한 PTSD 집단과 사고로 인한 PTSD 집단의 MMPI 프로파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3(1), 221-229.
- 이진숙, 한영숙(2006).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아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9(2), 21-31.
- 장현숙(2006). 우울증 증년 여성의 사례, **모래놀이치료연구집**, 2, 163-187.
- 전덕인(1996). 삼풍 사고 생존자의 PTSD 증상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96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5.
- 전보경(2007).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자기표현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모래놀이치료연구집**, 3, 69-95.
- 정문용(1996). 참전 재향군인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상태와 관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은선, 박은란(2003). 집단따돌림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32, 144-166.
- 최상국(2008). 우울증으로 PC중독과 학교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개소 20주년 기념 상담사례연구집**, 307-343, 서울특별시 아동상담치료센터.
- 최종희(2008). 우울감을 보이는 증년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모래놀이치료연구집**, 4, 139-166.
- 한덕용, 이창호, 전경구. Spielberg(2000). **상태-특성불안 검사**. 서울: 학지사.
- 허성호, 박은미, 정태연(2008). 탈북자의 C-PTSD 주된 증상 및 회피성향 개선요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4-175.
- 홍창영(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영선(2007). 우울성향의 증년 여성사례에서 모래놀이치료의 활용.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439-45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lanchard, E. B., & Hickling, E. J.(1997). *After the crash: assesment and treatment of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ashington D. C.
- Goodwin, J.(1980). The etiology of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On T. William(E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s Vietnam veterans*, 1-23. Cincinnati, OH: Disabled American Veterans.
- Green, B. L., Lindy, J. D., & Grace, M. C.(1995). Psychological effects of toxic contamination. In T. L., Ursano, B. G., McCaughey & C. S. Fullerton(Eds.). *Individual and community responses to trauma and disasters: The structure of human chaos*, 154-176.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seph, S. A., Brewin, C. R., & Williams, R.(1993). Causal attribu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in adolescents.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247-253.
- Lindy, J. D., & Titchener, J.(1983). "Acts of God and man" : Long-term character change in survivors of disasters and the law. *Behavioral Sciences the Law*, 1(3), 85-96.
- Penk, W. E., Robinowitz, R., Patterson, E. T., Dolan, M. P., & Atkins, H. G.(1981). Adjustment differences among male substance abusers varying in degree of combat experiences in Vietnam.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426-437.
- Stanton, M. D., & Figley, C. R.(1978). "Treating the Vietnam veteran eith the family system". In C.R. Figley(Eds.), *Stress disorder among Vietnam veteran: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281-290. N.Y. Brummer/Mazel.
- Ursano, R. J., Fullerton, & McCaughey(1994). "Trauma and disasters". In T. L., Ursano, B. G., McCaughey & C. S. Fullerton(Eds.) *Individual and community responses to trauma and disasters: The structure of human chaos*. 3-27.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on, C. B.(1983). Aftermath of a disaster: The collapse of the Hyatt Regency Hotel Skywalks. *American J. of Psychiatry*, 140(9), 1134-1139.

접 수 일 : 2009년 10월 26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월 26일